



3면 이계명 "구속영장 심사 받겠다"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1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서거서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긴급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지사 "국회 출석 요구시 응할 것"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

내년 국가예산 확보·지역 긴급현안 등 논의

새만금 챔버리 대응상황 논의가 주요 부분 차지

"전북이 부도덕으로 매도되선 안돼... 명예 지킬 것"

전북도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월 조찬간담회를 갖고 2024년 전북 국가 예산 및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챔버리와 관련 국회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찬 모임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실·국장들과 서거서 전북교육감이 참석했다.

전북 국회의원으로 김윤덕·강성희·김성주·신영대·김수홍·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정운천 의원이 참석했다.

8월 조찬 간담회는 긴급현안, 법안논의, 현안보고 등 7건이 논의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챔버리 주요 대응 상황을 비롯해 전북지역 수해 피해 현황 및 복구지원 계획이 다뤄졌다.

특히, 새만금 챔버리가 이날 조찬간담회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차질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치 선례처럼 또 다른 도정 주요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만금 챔버리와 관련 "그동안 애써 주신 도민들, 국민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지금은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가 파행됐다. 지사 출석 때문으로 알고있다"며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마음이 무겁다. 어제(16일) 회견했다. 이유는 행사가 부족한데 무엇인지 평가를 해야하는데 모든 책임이 전북이라고 보고 땀 흘려까지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지속적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은 챔버리와 관계없는걸 주장해야한다. 이번 기회에 전북출신 국인의원 의원들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김관영 민선8기 이후 30년만에 처음 여야가 협치했다. 특별자치도와 이차전지 등 성과를 얻었다"면서 "지금 시점이 전북정치 시대다. 잘못들을 따질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이 정부 사업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야한다. 특별자치도와 예산 등이 챔버리의 족쇄가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부도덕으

로 매도되선 안된다"며 "전북의 명예를 지키겠다. 전북 발전 위해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선생님들의 고통·아픔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

전북학생의회, 교사 교육활동 보호 지지 선언
"선생님들의 열정·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

"우리 학생의 원들은 도내 모든 학생들을 대표해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전북학생의회 의원들은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학생

의회 의원들은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전북학생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현호 의장 등 전북학생의회 의원들은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20만 전라북도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명복을 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의원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교육활동침해 주체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침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학생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선생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묵

인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편협하고 치우친 시각이 아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권리가 함께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데 전북학생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SNS를 통해 '선생님 사랑합니다'라는 프로필 메시지 달기 운동을 즉시 시작하겠다"면서 "선생님과 함께 사진 찍기 운동을 통해 선생님과의 신뢰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옥마을 등 인파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주말을 이용해 교권존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은성기자

전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돕는다

시, 총 300억원 규모 지역엔젤·계정·혁신 3개 펀드 조성키로
중기·소상공 경영 안정화 위해 92여억원 규모 육성자금 지원

전주시가 전주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돕는 엔젤투자자가 돼 주기로 했다.

시는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가 조성하는 펀드는 △3년 이하 기업을 위한 '지역엔젤펀드' △4~7년 이하 기업을 위한 '지역계정펀드' △8~12년 이하 기업을 위한 '지역혁신펀드'의 3가지로 조합 존속기간은 모두 8년이다.

우선 시는 지난 4월 조성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출자할 예정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한국모태펀드에서 98억원을 출자받고 20억 원의 시비와 민간의 82억원을 더해 총 17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은 안다시아벤처스(주)가 맡는다.

또한 시는 최근 마감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공모에도 참여해 5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지역엔젤펀드의 결성 펀드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시는 전주지역에 소재한 3년 이하, 최근 3개년 매출이 30억원 미만인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 원 이하로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시는 올 연말로 예정된 지역계정펀드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억원을 출자하는 등 약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전주지역 4~7년 이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 방침이다.

시가 벤처·중소기업 펀드 투자에 참여할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자금으로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약 9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최근 1차 접수를 마쳤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기업체와 소상공인이 전주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용자를 받으면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시는 혁신성장 펀드 조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 △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들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여파로 장기 경제의 전반에 걸쳐 저성장 기조가 지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지역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제11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2023. 10.6. - 8.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주최 완주군 주관 와일드&로컬푸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북도